

캄보디아 김현호, 나혜선 선교사 (유은, 다은, 소은)

2018년의 여덟 번째 기도편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 예레미야 1장 7절말씀

• 껌뽕뽕 법칙(?)

껌뽕뽕에서 혼자 생활한지 이제 4주가 지났습니다. 보통 유치원 선생님들과 하루 일과를 마치면 월~목요일 저녁은 컴퓨터 수업이 있어서 7시가 넘어야 정리하고 사택으로 올라갑니다. 금요일 저녁은 예배가 있습니다. 화~목요일 새벽은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예배 후 7시 반에 일과가 시작되기 전까지 가축들(거위 4마리, 닭 8마리, 병아리 3마리, 개 4마리, 고양이 2마리)을 돌보고 아침식사를 해결합니다. 월~금요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토요일 새벽에 프놈펜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 함께 껌뽕뽕에 옵니다. 껌뽕뽕에서 주일예배를 준비하며 다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오후에 다같이 프놈펜에 나갔다가 또 하룻밤을 다같이 지내고 월요일 아침 일찍 껌뽕뽕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점점 익숙해 지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숨쉬기도 많이 편해졌고, 음식도 잘 먹습니다. 체중은 좀 줄어서 바지가 헐렁해졌지만 건강해져서 감사합니다. 사실, 건강해 진 비결은, 새벽예배 때 마다 받은 은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달 유치원 졸업식 이후 네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유치원 시설 및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교실을 교무실로 바꿨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유치원 교실 하나를 도서관으로 새로이 꾸몄습니다. (사진: 교무실)



(아래 사진: 도서관)



도서관에 있는 책 중 한글로 된 책들이 많아서 크마에로 번역하여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번역해서 선생님들이 감수를 하고 수정, 보완하여 프린트 한 후에 원본 위에 오려 붙이는 작업입니다.

9월 3일에 도서관을 개관하여 방학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고등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껌뽕뽕의 아이들이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학교로 생각하고 경험되어져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소예배실은 11월에 시작될 1학년 교실로 바꾸기 위해 계속 정리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왼쪽 사진: 1학년 교실에 들어갈 책상을 만들고 있는 썸냥, 쏘카 선생님, 오른쪽 사진: 정리 중에 있는 소예배실)

유치원 주방과 창고도 정리하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궁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와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맡겨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보기도로 함께 해 주세요.

• 믿음으로 하나되기

보통 유치원 학기 중에는 7시 반에 일과가 시작됩니다. 선생님들과 15분 정도 미팅을 하고 7시 45분에 유치원 아이들을 입실 시킵니다. 그러면 8시부터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11시에 마칩니다. 하지만 지금은, 7월 27일 졸업식 이후, 교사들과 재정비 및 새학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카, 썸낭, 곰행, 스러이다 선생님과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만하고 회의를 시작하던 것을 바꾸어 말씀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기도'는 순회선교단에서 하고 있는 예배의 형태로, 본문을 정하여 다같이 읽고 5~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느낀 점이나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식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찬양하고 말씀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선생님들의 믿음의 고백의 수준이 믿음의 초보단계는 벗어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



아서 좋았습니다. 최근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기도를 하고 있는데, 함께 나누며 같이 웃고, 때론 눈물도 글썽이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

낌이 들어서 또 감사합니다. (사진: 왼쪽부터 곰행, 썸낭, 스러이다, 소카 선생님)

11월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 한 분(썸낭 곰스리응)이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육 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직에 있는 젊은 선생님입니다. 전에 면접을 봤을 때 느꼈던 것은, 아직까지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곰스리응 선생님도 한 믿음, 한 마음으로 함께 비전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새로 오시는 선생님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달의 기도제목

1. 새벽예배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매일 초등부 어린이들 2~3명과 중고등부 학생들 3~4명, 청년 1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도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새벽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진: 8월 26일(주일) 중고등부 헌신예배 특송)

2. 유치원 새학기(11월) 교구 준비와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준비(행정서류 및 교재구입, 입학식 준비)를 잘하여 기독교 학교로서 초등과정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3. 9월 8일(토) 현지 목회자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주제를 잘 정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4. 9월 18~28일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새학기 학생모집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 졸업생 중에서만 받기로 해서 신입생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유치원 신입생들을 잘 모집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5. 예배당 건축 건은 잠정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캄보디아 (855)12-243-182 김현호 선교사 (카톡아이디 : acts1005)
(855)92-327-201 나혜선 선교사 (카톡아이디 : isearun)

**파송교회 : 사랑빛교회 (백석) 담임목사 오성민
(031)443-8999 www.loveray.or.kr

**파송노회 : 백석 수도중앙노회